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 주일말씀의 핵을 먼저 전하고 새벽 잠언을 전하기 바랍니다.

목, 금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1. 운전하는 사람은 세밀하게 봐야 갈 수 있지만, 차에 탄 사람은 대강 눈에 스쳐 보며 가도 가진다. 하나님 섭리사에 사명자들도 운전자같이 자세하게 보고 가르치며 가야 한다.
2. 자세히 보고 운전해야 사고 안 나듯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 문제를 확인하고 생명들이 주와 일체 되어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 행하게 해야 사고가 안 난다.
3. 지구 세상의 환경이 오염되면 기후 변화, 온난화 현상, 홍수, 가뭄 등 각종 재해가 일어나 해를 받는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개인, 가정, 민족의 죄로 오염되면 하나님 뜻에 모두 변화가 일어나 결국 죄로 인하여 행한 대로 양심 심판, 홍수 심판 등 각종 심판이 일어난다.
4. 개인 모두 각자 죄를 회개하고, 민족도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롭게 살게 된다.
5. 더러우면 썩는다. 병균들이 생긴다. 그것들이 결국 사람에게 전염되어 병들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와 같이 죄는 더럽다. 육신도 혼도 영도 병이 들게 한다. 회개하여 깨끗이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6. 사람이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고 문제 있는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도 아프고 그로 인해 병이 일어난다. 고생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시대 말씀 전해 듣고 행치 않으면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죽기도 한다.
7. 예수님은 “샅꾼들은 샅만 받으려 하고 양에게 쭈을 먹여 병들게 한다. 목자 외에 주는 말씀의 양식을 금지하고 샅꾼들을 절대 조심하여라. 금하라.” 하시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8.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고가 결정되고 행실과 뇌가 결정된다.
9. 가인을 따라간 자 중에 아벨 된 자가 없다. 매일 ‘가인 생각’만 가르치고 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를 따라가지 않고 구원받을 자를 따라가면 그 사고, 생각, 행위를 따라하다 구원도 못 받는다.
10. 절대자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시대 보낸 자를 따라 배우고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 주일말씀의 핵을 먼저 전하고 새벽 잠언을 전하기 바랍니다.

목, 금 새벽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11. 율법자들같이 구시대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면 구시대에서 산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하여 새 시대에 보낸 자에게 시대 말씀 주고 그를 통해 구원하며 행하신다.

구시대는 구시대끼리 항상 가인과 아벨로서 4000년간 싸움과 전쟁이다. 지금도 하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은 ‘아벨 편’ 이다. 새 시대도 보다 아벨과 가인이 싸우지만 하나님은 ‘아벨 편, 선 편’ 이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안 지키고, 사람들이 준비 안 되었다고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의 시간을 지키면, 천주 온 세상 뒤집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시어 듣기만 하지 말고 기록 준비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니 하신 말씀이었다. 좀 있다가 준비해서 기록하려니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셨다.

하나님은 1초도 착오 없이 행하신다. 그런데 시대 소경들, 미련한 자들아, 성약역사가 시작 안 되었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아도 안 된다. 천지 만물 창조했다는 것만 믿어도 안 된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아야 한다.

자기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와 일체 되고 하나님과 일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보낸 자, 사람과 말씀하시니 그 말을 듣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같이 일체 되어 믿어야 된다.

예수님 시대 때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하였다.

하나님은 절대 순서와 순리로 행하신다.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신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시대 보낸 구원자를 통해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각자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

“그럼 뭐하러 선지자, 중심인물, 사명자가 필요하냐. 어떻게 동등권의 대함을 하느냐. 선지자, 중심인물, 메시아는 기르고 가르치고 하여 나 하나님과 살다가 보낸다. 세상 나라들도 다 체제를 따라 모두 주관권의 왕들을 세우고 급수대로 하지 않느냐. 성경에 메시아요, 선지자요, 목자요, 장로요, 교사요 하지 않았느냐.

(고전 12:27-29)“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갓느냐 다 선지자갓느냐 다 교사갓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갓느냐”

모세는 직접 대면하고 백성은 일반적으로 대하지 않았느냐.” 하셨다.

물론 개인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도울 것 도우신다. 그러나 시대 말씀은 항상 보낸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 주고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

“그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역사니라.”

“의문스러운 것 다 자세히 알고 하나님을 자세하게 전해 주려고, 몰라서 자세히 하나님을 못 섬기면 사명자인 내 책임이 있기로 자세히 물어보았나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지를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물어봐라.’ 하셨기에 항상 물어봅니다.”

“이미 성경에 선지자나 중심자나 메시아로 이에 대하여 말하였다. 지체는 일생 동안 지체이고 머리는 일생 동안 머리니라. 지체가 머리 되어 하는 자들은 사탄이 머리 되기 원하니 즉시 그를 쓰고 행한다. 고로 사탄 것이 된다. 섭리사도 그런 자들은 사탄의 몸이 되어 넘어지게 하였다.”